

읍의 고난설화에 대한 논의¹⁾

게르하르트 폰 라트 (교수, 하이델베르크대학 구약학)

이 양 구 (목사, 김포 천성교회)역

읍기는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성립된 책이다. 첫째, 서사시적이고 산문적인 설화부분이 본서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1-2장과 42:7절 이하).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순종하는 읍으로 나온다. 둘째, 총 39장에 이르는 방대한 대화체의 부분. 종교적으로 온갖 시련에 부딪혀서 온갖 질문을 다 하는 읍으로, 초반부의 교육설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 지평을 연다. 초반부의 단순한 산문설화에 삽입된 후대의 자료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이 아주 절묘해서 연결 부분의 실밥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접합 설화의 내용 : 읍은 온 몸에 종기가 뒤덮혀서 마을 어귀로 나가 쓰레기장에 누워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그 곳으로 방문한다. 그들의 상봉 장면이 자세히 묘사된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지만, 읍을

1) 이 글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가 1961년 10월 남서독 라디오 방송의 개신교 시간에 방송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알아보지는 못한다. 소리를 높이어 울고... 그와 함께 일 주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으나, 한 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욥의 고통이 지극히 심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2:122f). 이렇게 위로하려고 온 사람들의 긴 침묵은 바로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념비적인 제스처어이다. 아무 말이 없는 위로, 욥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몸짓이다. 그러나 침묵이 위로의 전부는 아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지만, 오랫동안 침묵하였던 자들로서 말을 한다. 그런데, 그토록 길고 소름 끼칠 정도의 음산한 침묵을 깬 자는 욥이다. 여기서 3장이 시작되고, 둘째 부분이 시작된다. 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의 인생과 생일부터 저주한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왜 죽음을 기다리는 끈고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죽음이 오지를 않는가! 이렇게 3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욥의 탄식은 4장부터 이어지는 방대한 대화의 서곡이다.

대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에서 욥의 친구가 말하고, 욥은 항상 대답을 한다. 욥이 세 배로 자주 말을 한다. 대화의 중점이 욥의 독백에 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주장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틀린 것, 위선적인 것으로 경시하는 것은 원시적인 이해이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엘리바스의 첫 말씀은 이미 조심스러운 목회자의 완벽한 조언이다. 그는 욥 자신이 이미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한 사실을 지적한다(4:3). 그런 다음 욥에게 충고한다. “나 같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내 일을 그 앞에 진술하리라”. “보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하신 자의 징계에 반항하지 말라. 그는 상해를 입히시고 싸매시며, 친히 치시고 손수 치료하신다”(4:17f). 누군들 이런 식으로 욥에게 말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엘리바스가 최고의 해결책(처방전)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한 말은 그 공동체의 경험이고, 이런 경험을 참작하는 것이 욥에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8장에서 말하는 빌닷도 아주 비슷한 권고를 한다. 지난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제부터 사는 자들이고 아무 것도 모른다”.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고 충고한다. 바로 이 점이 욥이 취하고 있는 자세의 약점이 아닌가? 하나님이 족장들이나 모세나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계시한 일이 없거나 하였던 것처럼, 욥은 지금 냉혹한 자세로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완전히 자기 한 사람에게로 버림 받은 상태에서, 자기 조상들의 풍부한 신앙의 전승 전체가 더 이상 자기에게 하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온갖 시련에 휩싸여 시달리는 인생으로 역사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인생을 욥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욥의 가장 깊은 원인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욥에겐 지금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서서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이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독백을 하고 있다는 답답한 느낌이 독자들에게 온다. 그들 사이에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이다.

나는 이제 욥의 독백들 중에서 그래도 사고의 진전을 보여주는 두 개의 노선만을 지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두 노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분리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면을 지니고 있다.

친구들 중에서 맨 먼저 엘리바스가 권고하는 말을 끝내자마자 욥은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 생각을 그는 더 이상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다. “전능자가 쏜 화살이 내게 박혀 있다”. 하나님의 독화살에 맞은 것으로 욥은 자각하였다. “하나님이 쏜 화살의 독을 내 영혼이 마시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일들이 내게 쏟아져 내렸도다”(6:4).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원수이다. 인간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 신이다. 이 신은 재앙의 신이

어서 그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나쁜 제비를 뽑게 되어 있다. 인간은 그 신 앞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 신 앞에서 한 번도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인간이 비록 신과 투쟁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신의 천 가지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다”(9:3). “보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9:12).

그런데 이토록 캄캄한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욥을 사로잡는 놀라운 일이 다른 한 편에서 환한 아침처럼 밝아 온다. 어둠과 밝음의 두 노선이 나타난다. 이 밝은 빛에서도 욥은 쉽게 눈을 떼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정통으로 사로잡혀 황홀해진다.

욥은 이토록 밝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친구들 앞에서 영광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몰린 자신을 체감한다.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 대하여 갖는 관심 자체를 욥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시고 사람을 위하여 근심걱정을 하십니까? 주께서 왜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7:17, 19).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노선, 곧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의 노선은 16장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찌푸린 악마의 상으로 일그러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며 내게 눈을 부라리고 계십니다”(16:9). (헬라이어 역본은 여기서 화살촉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쏘아 보신다고 번역한다). 아니, 맹수처럼 하나님이 그를 갈갈이 찢어 놓으신다고 한다. “그가 나의 목덜미를 확 붙잡고..., 나의 콩팥들을 쪼개버리고, 나의 쓸개를 땅바닥에 흔들어 쏟았고..., 내 얼굴은 울어서 붉게 되었고, 나의 눈꺼풀 위에는 깊은 어둠이 덮여 있다”(16:12, 13, 16). 욥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두운 면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공포의 암흑면은 수천년 동안

아마 극소수만이 겪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폰 라트가 이 글을 방송할 때가 1961년이니까, 20여 년 전의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가까이 군복무도 하고 젊은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면, 그는 지금 옴 속에서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필자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허무한 인생의 탄식을 이해하게 된 위치에서 말한다면, 옴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좀 약하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겐 아직도 찾아오는 친구들이 셋이나 있고, 그가 여전히 인생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사후의 세상에 대하여서까지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정신을 품고 있는 한에서 그는 이미 전보다 더 풍부하고 부유한 인생과 더 넓은 정신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치매에 빠져서 자기 식구들도 못 알아보고 자기 수족이나 혀도 못 움직이는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해 보면, 옴은 오히려 초인의 세계를 활짝 열어 놓고 달변의 친구들을 셋이나 제패하는 정신적인 용사로 등장하지 않는가? 세상을 모두 잃고 정신을 얻었다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분명히 더 많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엄청난 정신적인 자산의 생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 역자 해설).

과연, 옴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심리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밝은 노선으로 다시 뛰어 넘어간다. 옴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다. “지금 이미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16:19)...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을 바르게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16:20-21).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심을 내가 안다”고 선포한다(19:25). ‘나의 구속자’는 옴의 해방주, 구세주요, 옴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어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자이다. 여기서 옴의 밝은 노선이 일단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 옴은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결코 무슨 벌레처럼 밟아서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도, 옴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교화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다. 옴은 지극히 극적인

신앙의 변화를 파란만장하게 겪고 있다. 지금 욥이 가진 하나님 상은 거의 상반된 두 얼굴로 찢어져 있다. 그는 온 정성을 다 바쳐 자기를 망치는 원수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의 친구가 된 하나님에게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 확신이 거의 현기증이 나는 종교적인 자의식으로 굳어져 있다. “제발 내 말을 들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여기에 나의 서명이 있노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구나...나는 봉신처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라”(31:35). 결국 욥에게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주장하던 바와 같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 관계를 푸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그토록 이해할 수가 없고 무섭게만 되어 버린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님이냐는 문제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이것이 욥기가 풀려는 문제이다. (고난의 문제를 푸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냐의 .대립적인 사고는 폰라트 뿐만 아니라, 독일 신학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일 것이다. 유대인 중심의 영미 계통의 주장을 뒤집어엎고 세계적인 학설을 내세워 성경 해석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두 주장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든지 간에 일평생 그들의 학설에 노예가 되어 살기가 쉽다. 욥기에 고난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관계와 직결된 것일 수도 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서양의 파벌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성경을 배우고 해석할 때가 오리라 - 역자 해설)

욥이 31:35에서 전능자에게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최후의 도전을 하자 하나님이 수많은 질문들을 계단식의 작은 폭포들처럼 쏟아 붓는 말씀을 하신다. 네가 도대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느냐,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특히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네가 들짐승들을 돌볼 수 있느냐? 산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네가 지켜 볼 수 있느냐?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의 행동을 네가 알 수 있느냐?(38-41장). 독자라면 누구나 여기서 들리는 배후의 음성을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인간의 모든 공리적인 사고가 완전히 부끄럽게 된다. 인간의 이익, 유용성, 효율성을 따지는 잣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단할 수가 없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점에서 가장 귀중한 비를 하나님이 드넓은 초원 위에 쏟아 내리시고, 인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는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특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들나귀 떼들인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가치 구조 속에도 맞추어 넣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질문자의 상황이 급반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38장에서 장엄하게 질문을 시작하지만, 두어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는 금방 갑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다. 마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듯이 설명을 한다. 질문자가 갑자기 피질문자로 나타나서 순식간에 자기를 방어하는 수세에 몰린다. 이런 대답이 38:7, 9-11, 14, 21, 23, 30, 40, 39:4, 6-8, 14-18, 21-25, 28-30에서 계속된다. 그 사이에 홍수처럼 쏟아지던 질문들 속에는 분명히 매우 단순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곧, 천지의 대주재에게 함부로 덤비는 욕에게 위엄차게 거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토록 준엄한 호령들 속에서도 아주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명충이가 될 것이다.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버지처럼 그 모든 것을 돌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그 모습, 자기가 창조한 만물을 돌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숨은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는 명충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질문들이 욕을 궁지로 몰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끝까지 압박만 한 것은 아니다. 42:4에서 욕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욕에게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그토록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게 된다. (이미 부단하게 계속된 하나님의 설명이 바로 동물원 같은 사파리에서 아들의 어깨 위로

한 손을 엮고 다른 한 손으로 짐승들을 가리키면서, 아니 천지만물을 가리키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점점 더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하신다.) 이 세상에는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가슴에 이런 수수께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들이 가르치는 내용일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존중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욥이 다음과 같은 대답도 했을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42:2).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으로만 들어 왔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명했던 소송장을) 취소하고 흠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42:5-6). 욥은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낼 줄 알게 되셨다. 욥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로 존귀하게 인정을 받았다 -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장엄한 세계 지배의 비밀을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쁨, 아니 - 더 나아가 세계와 인생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을 한 번 들여다보는 기쁨인 것이다. (이 결론은 다음 요나서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요나도 결국은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속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재산을 쌓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일평생 몸부림을 치기 쉽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세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며 살 줄 아는 것에 민족의 힘이 숨어 있고, 우리 모든 개인의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 역주).

욥기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고전적인 작품이다. 고대인의 문학 작품!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처럼 일정한 기대감을 품고서 욥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특정한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책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우리 자신을 열어서 욥기 자체의 특수한 것과 그 자체의 특정한 문학 양식과 종교적인 문제들 속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 작품의 구성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아주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의 대화 부분과 맨 앞뒤의 테두리 설화 부분. 이 설화 부분은 좀 더 민속적인 내용으로 서사시적-산문적이고, 대화 부분은 지극히 시적인 문체로 나타난다.

설화 부분은 1-2장과 42:7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만을 다루려고 한다. 여기서 욥은 엄청난 부자로 나오는데, 오늘 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추장이나 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거부가 팔레스틴 농경지의 동쪽 변두리에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착하고 경건한 사람이기도 해서 자신의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족장 가문의 경건한 가풍(家風)을 이어가는 인생을 살아갔다. 욥기의 처음에서 독자에게 들리는 내용을 요약하면, 선을 많이 행하고 복을 그대로 많이 받았다는 것을 항상 만족스럽게 확인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선행과 행복의 완벽한 일치였다. 이 말을 하는 첫 부분은 1:1-5절로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으로, 욥의 사정이 이러저러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맨 처음의 다섯 구절을 서슴없이 해설 부분(Exposition)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터진다는 것도 독자들은 알고 있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우리를 하늘의 무대로 이끌어 올라가는 첫 번째 무대가 열린다-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극 무대의 첫 장면이 열리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 분위기는 결코 상큼한 것이 아니다. 이 날이 바로 천사의 알현일(謁現日)이어서, 천상에서 일하는 천사와 악마들이 모두 하늘의 임금 앞에 출석하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업무를 보고하고 새로운 명령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들을 고발하는 검사 역의 사탄도 있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그 본래의 의미를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사탄의 인물상을 현대적인 악마의 모습으로 마치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탄이라는 고발자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오늘날 국가 조직의 검사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였고, 회의석상에서 하나님께 사탄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사탄이 스스로 보고할 차례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물었다. 사탄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하나님이 묻자, 사탄이 대답을 하는데, - 우리는 그 자세가 좀 건방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 “세상에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돌아다녀 보다가 왔지요”라고 한다. (사탄의 대답은 단지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세상에서 휘돌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걸어다니다가’ 정도가 되고, 특히 전치사 *min=from*을 두 번이나 동사와 연결해서 사용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밋슈트 바아레츠 우페히트할라크 바흐). 이 대답에서 우리는 사탄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온 세상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광활한 하늘 임금의 나라 가운데 어디에서 무슨 불의한 일이라도 일어나는가를 알아내는 것. 사탄의 임무가 이런 것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그런 보고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탄의 대답 속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과 틀림없이 피해 가고 있는 내용을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그토록 온전히 의롭고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욥에 대하여, 아무리 날카로운 사탄의 눈이라도 전혀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욥에 대하여 물으셨다. 이것이 사탄에게는 명백한 도전으로 들려서, 사탄이 단숨에 자기의 신중한 자세에서 벗어나온다. “욕이 정말 공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청중들의 무대 위로 무슨 돌맹이처럼 이 질문이 떨어진다. 고발자인 사탄이 욥의 경건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발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 경건의 동기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만사가 그렇게 잘 되어만 간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만 내려 주신다면, 경건하게 되기는 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탄의 논쟁은 배후에 ‘보상이 없는 경건’(eine Froemmigkeit sonder Lohne)이란 도대체 있거나 한 것이냐는 질문을 숨기고 있다. 인간이란 모든 면에서, 물론 인간의 종교적인 경건에 있어서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역시 이기주의자(Egoist)인가? 이와 곁들여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 보자. 여기서 하나님에게 제기하는 사탄의 반문은 부당한 것인가, 아니 악마적인 것인가? 아니다. 그 반문은 순수하고도 진지한 질문이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이렇게 반론을 펴므로써 하나님의 중요한 일 하나를 잘 이루어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일을 살살이 조사해 보도록 즉석에서 임무를 부여해 주신다. 곧,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명백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천상의 모든 회중들이 듣는 중에서 욥의 인간됨과 그의 순수한 경건에 대하여 친히 보증을 하면서,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도록 한 것이다. 사탄은 즉시 그 무대에서 나간다.

다음 무대는 우리를 지상으로 인도한다. 설화자가 이렇게 천상과 지상의 두 무대를 이용하는 연출 기법은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작품에서 펼쳐지는 내용 전체를 아주 깊이 생각하여 그 배경까지 다 알도록 한다. 이제 독자들은 욥이 그토록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된 배경의 내용을 사탄과 함께 알고 있지만, 욥은 당연히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전혀 아무 것도 모른다. 욥에겐 갑자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져 내린다. 어느 종이 달려와서 한 가지 재앙을 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종이 나타난다. 소 떼들이 사라졌다고, 양 떼들이 없어졌다고, 낙타 떼들이...그리고 마침내 욥의 자식들이 모두 토네이도와 같은 회오리바람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서서 옷을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 기도하였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되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욥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세상의 어떤 물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군자로 욥을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오해일 것이다. 지극히 유연한 곡예사가 거의 초인적인 방식으로 자기 몸을 자유롭게 말아 감을 수 있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자기를 고도로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된다. 아니, 욥은 철저히 인간이다. 그는 너무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다. 너무도 깊은 상처를 입고 시골 농부라면 누구나 다 하는 상주의 의식을 즉각 거행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런데, 그를 그토록 깊이 쓰러뜨린 고난 중에서, 그리고 그토록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경건함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욥이 그 때에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아주 간단한 것, 아주 참된 것, 논리를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 이 논리에 욥은 그냥 복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간 천상의 무대 장면을 되돌려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발자 사탄과 나눈 대화를 천상의 회의실에서 다 함께 들었던 자들이 모두 긴장된 얼굴로 욥을 내려다보면서 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욥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 고발자가 기대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 신앙을 내팽개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제는 우리가 긴장된 자세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고발자와의 두번째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기다리게 된다. 그 고발자에게는 자기가 졌다고 승복하는 것밖에 다른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사탄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비난하는 어조로 읊은 여전히 자기의 경건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사탄에게 들이대자, 사탄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죽을 주고 가죽을 사는 법이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소유한 것을 모두 내어주는 법이지요”(2:4). 이 말은 새로운 차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말씀이다. 사탄이 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란 그저 냉혹한 이기주의자이다. 사탄이 아는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목숨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선창 밖의 물속으로 내어 던진다. 결국, 첫 번째 시험과 그 결과는 아직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것이다. 인간에게 막상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만 생기면, 그러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때에는 마침내 인간 본연의 야비성이나 철면피성(Zynismus)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장면은 폰 라트 자신이 미군의 포로수용소에서 체험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할 때에 수용소의 다른 독일군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지 못하고 피통을 싸면서 죽어갈 때에, 폰 라트 자신은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으로 떨어지면서 타인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라고 묘사하고, 자신은 밥을 탈 때에도 제일 나중에 타고, 통조림을 먹을 때에도 적은 양의 통조림이지만 십여일 동안 굶은 창자에 갑자기 삼키지 않고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정말 오랫동안 아주 조금씩 훑아 먹고 탈이 없었다고 고백한 글이 사후에 발견되었다. 그 때에 그는 결코 철면피하지 않았다. 이 유고집은 필자가 포로 회상기로 이미 번역 출간하였다.-역자 해설)

정말 무시무시한 주장이다. 그러나 사태는 첫 무대에서와 똑같이 전개된다. 하나님께서 논쟁의 합법성을 인정해 주신다. 그 고발자에게 또 한편의 시험을 실시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시각에 즉각 읊은 온몸에 무시무시한 종창이 달라붙었다. 그는 무조건 건강한 사람의 주거 영역 밖으로 떠나야 되었다. 그는 갑자기 모든 말을 잃고 종교 의식법에 따라서 부정(不淨)하게 된 사람들의 운명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성문 밖의 쓰레기더미 속에 자기 몸을 놓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기 아내의 방문을 받는다. 그 여인이 한없이 비참한 상태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보고 간절한 충고를 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깊은 내면속에는 끝없이 냉혹한 심연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여인은 그저 보통 인간들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인간들이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가질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킨다. 그러나 그럴 동안만 그럴 뿐이다. 유익할 동안만 믿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발자 사탄이 맨 앞에서 미리 말한 바와 똑같이 행할 뿐이다. 욥의 아내는 단순히 그 당시 보통 인간들을 대표하는 여자일 뿐이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욥은 자기 아내의 무리한 요구를 받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간다. “당신이 미련한 여인네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구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흉악한 일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한 해석이 여기서 다시 해당된다. 이 대답은 자기 절제에 능란한 어느 도인의 최상의 감정 노출이 아니라 그저 아주 단순한 것이고 저절로 명백한 무엇일 따름이다. 욥은 이미 하나님에게 소속된 관계 속에 안전하게 피하여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무리한 요구를 근본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만 인정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무슨 고난을 받는 것은 거절하는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탄은 이제 패배를 당한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너무나 명백해진 것이다. 원형의 산문설화에서는 그 다음에 욥의 번영과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었고 전해진 것이 틀림없고,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42장의 맨 끝에서 읽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늙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고서 죽었다.”

욕기의 산문설화는 보통 교육설화의 모든 특징을 다 지니고 있다. 교육설화에서는 우선 순수하고 온전하고 전혀 이기적이 아닌 경건이란 있는가라는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고발자인 사탄을 상대로 맨 앞에서 이미 욥은 그런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꼭 한 가지만을 보여 줄 일이 남아 있다. 곧, 헤르더가 이미 아름답게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보증을 서면서 약속하신 말씀(das Ehrenwort Gottes)을 욥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정당화시켰느냐를 보여 주는 일! 고발자인 사탄은 근본적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의 전체에서 결코 주역을 맡고 있지 않다. 그저 조역일 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나라라는 일종의 국가에서 검사역을 맡고 있다. 하나님은 그를 대화의 상대자로 삼으시고, 따지고 덤비는 그의 논리를 진지하게 받아 주신다. 그밖에 그에게는 아무런 실권도 없다. 정말 주목할 만하게도 욥은 “여호와께서 주셨고, 사탄이 취하여 잤다”고 말하지 않는다. 욥은 이 문제를 오로지 하나님과만 관련시킨다. 그런데, 욥이 말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 하면, 헤르더가 다시 황홀하게 묘사한 바와 같이, 이 욥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Dieser Hiob leidet als der Ruhm und Stolz Gottes). 저 쓰레기장에 버려진 인간이,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고난을 받도록 천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을 전혀 모르고, 또 실제로는 자기의 말에 달려 있는 그 중요한 사항을 전혀 모르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요, 곧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증인이 되고, 간단히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함으로써 최고의 증인이 된 것이다.

욥의 이야기가 본래는 이렇게 간단하고 짧았다. 후대에 와서 욥이 자기의 친구들과 장황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지금은 방대한 욥기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모두 만장일치된 상태이다. 이 방대한 삽입 부분은 그 자체의 비중도 있고 그 자체의 신학적인 주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제목을 달리하여 그 부분을 다룰 것이다. ●